

나주시, '2025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 한창

별·빛·자연이 어우러진 9개 테마 야간정원
2026년 1월 4일까지 야간 상설 전시 선보여

전라남도 나주시가 겨울밤 시민의 일상에 빛과 감성을 더하는 야간 공원형 축제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를 선보이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026년 1월 4일까지 '별이 내린 빛의 정원'을 주제로 한 '2025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을 9개 구역으로 나눠 각기 다른 테마의 야간 경관 조형물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빛이 들려주는 겨울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 빛, 자연, 상상, 감성...4가지 키워드로 꾸민 몰입형 야간정원

이번 전시는 빛, 자연, 상상, 감성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조형물마다 나주의 자연환경, 시민의 일상, 도시의 성장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서사를 담아 단순 전시가 아닌 '이야기와 경험의 정원'으로 완성했다.

관객은 축제 공간을 따라 이동하며 빛이 상징하는 시작, 희망, 치유, 연결의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만나게 된다.

전시의 첫 공간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빛의 꽃과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나비 조형물이 이끄는 변화와 시작, 그리고 도시의 새로운 날갯짓을 상징한다.

나비들의 인도 끝에 나타나는 '빛의

마차'는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별빛을 싣고 마을로 향하는 상상의 운송수단이다.

자연과 사람, 도시와 도시를 잇는 소통의 상징으로 어린이에게는 동화적 감성을 선물하고 성인에게는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 리듬이 흐르는 다리, 전시의 중심 '여울다리'

축제의 중심 공간인 여울다리는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전체에 조명이 설치돼 음표처럼 반짝이는 빛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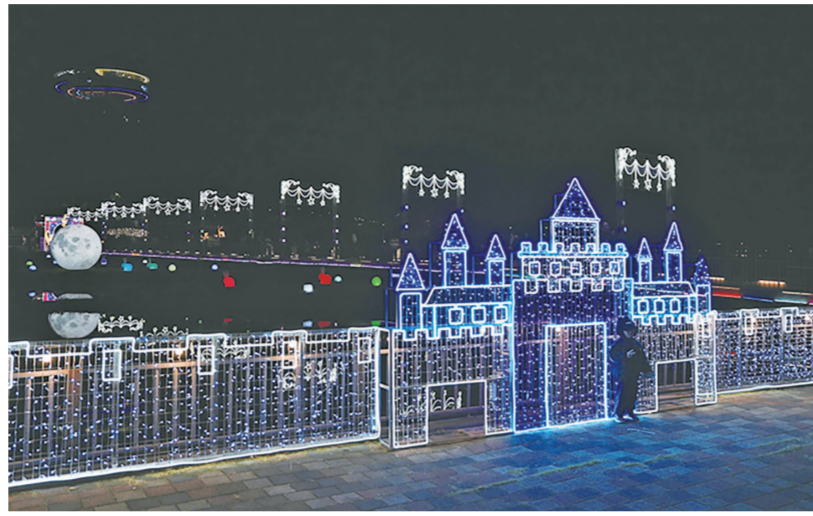
관객의 발걸음이 빛과 함께 음악처럼 흐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며 '일상 속 작은 걸음이 도시의 미래를 밝힌다'는 메시지를 시각화했고 다리를 건너면 잔잔한 물결 위로 달빛이 내려앉은 듯한 조형물이 등장한다.

호수와 달이 서로 반사하며 만들어내는 몽환적 풍경은 관객에게 휴식과 평온의 감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준비됐다.

나비와 별이 지나온 길의 끝인 숲길에서는 빛을 품은 사슴들과 반딧불이 조명이 숲을 감싸며 환상적인 산책 경험을 선사하고 숲의 수호자처럼 서 있는 사슴 조형물은 길을 따라 걷는 관객을 안내하며 자연 속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마지막 공간 '빛의 성채'

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빛의 성채'



빛가람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빛의 성채'.

■ 야간 경관폭포와 미디어파사드는 축제 전체의 감정을 정리하는 하이라이트 공간이다.

성채 외벽을 타고 흐르는 조명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내부의 중심 광원은 나주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상징한다. 이곳은 도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온 힘과 방향성을 형상화한 핵심 공간이다.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는 2026년 1월 4일까지 매일 저녁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점등하며 나주시는 이번 야간정원을 연말과 연초에 시민과 방문객에게 따뜻한 감성과 휴식을 제공하는 겨울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빛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 위로와 설렘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연말연시 가족, 연인, 친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마지막 공간 '빛의 성채'

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빛의 성채'

는 축제 전체의 감정을 정리하는 하이라이트 공간이다.

성채 외벽을 타고 흐르는 조명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내부의 중심 광원은 나주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상징한다. 이곳은 도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온 힘과 방향성을 형상화한 핵심 공간이다.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는 2026년 1월 4일까지 매일 저녁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점등하며 나주시는 이번 야간정원을 연말과 연초에 시민과 방문객에게 따뜻한 감성과 휴식을 제공하는 겨울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빛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 위로와 설렘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연말연시 가족, 연인, 친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마지막 공간 '빛의 성채'

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빛의 성채'



영암도기박물관 전경.

영암도기박물관, 국립박물관 우수 인증기관 선정

설립목적 달성도 및 시설·재정관리 등 높은 평가

영암도기박물관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제도다.

영암도기박물관은 평가인증 항목 중 ▲설립 목적 달성도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등 부문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먼저, 국내 첫 고온 유약 그릇인 시유도기를 포함한 영암 전통 도기 문화를 전승·교육·발전하는 박물관 설립 취지에 맞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박물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등 재정 관리에서도 우수했고, 특히, 국가귀속물 위임기관 지정, 전시·소방·수장 시설 설치·관리 등도 국립박물관의 모범이라는 평가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평가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장점은 이어가고 단점은 고쳐가겠다. 영암도기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기반시설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국립남도국악원, 오는 29일

'불세출' 초청공연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불세출 초청공연 (리플렉션)을 선보인다.

불세출은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난'이라는 뜻으로 2006년 결성한 국악단체다. 전통음악의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형식을 활용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단체이다.

이번 공연은 '우리의 일상을 노래하다' <리플렉션>으로 불세출이 그동안 축적해 온 단체의 음악적 색깔과 방향성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토속민요 비나리를 원형으로 하여 주요한 음악적 요소들로 재구성한 <비나리>를 시작으로 삼금연류 가야금산조를 모티브로 만든 <TakeⅢ>, 매번 연주할 때마다 달라지는 해금 선율이 일품인 <그그다>(그때 그때 다르다)로 무대를 흔든다.

이어지는 무대로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 작곡가 이들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풍류도시>와 죽은 사람의 넋을



빌어 10지옥을 탈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지옥가>, 마지막으로 경기민요와 서도민요의 특징을 담아 새롭게 불세출만의 색을 보여주는 <넝리리>로 무대를 꾸민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전화(061-540-4042, 장악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전혜정 기자

대한민국에서 단풍이 가장 늦게 드는 곳,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 국화리에서 29~30일 '단풍길 소풍'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가을 산책 명소로 꼽히는 청산도 국화리 단풍길은 슬로길 9코스로, 상수원 입구에서부터 지리청송 해변까지 3.2km 구간이다. 걸어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3km 구간 도로 양쪽에는 30여년 된 단풍나무가 긴 터널을

"늦가을 정취 만끽할 수 있는 청산도로 오세요"

완도군,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단풍길 소풍' 개최

이루고 있어 트래킹이나 드라이브 코스로 최적이다.

행사가 시작되는 29일에는 차량이 전면 통제돼 주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단풍길을 거닐 수 있다.

이번 소풍행사에는 서커스와 통기타 공

연,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고 단풍길 소원나무, 마그네틱·단풍잎 책갈피·키링 만들기 등 체험거리도 풍성하다.

행사 기간 청산도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간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산도 단풍길 소풍'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의 하나로, 청산농협 DMO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완도군이 후원한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늦가을 단풍 절정에 맞춰 청산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가을 감성과 여유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행사는 주민 주도로 섬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디나인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